

오늘의 기사판

행사 (6일)
▲제 15회 인형극과 함께하는 봄꽃 축제 개막식은 오전 10시 20분 북구청 광장. 팬지·마가렛·페튜니아·데이...

소프라노 주경휘 귀국독창회

장과 협력관계'에 관해 강연. 062-654~3427
▲정신지체인 가족화합 나눔이=오전 10시 쌍계사. (사)광주시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주관으로...

공연

▲목요일한국악한마당=오후 7시 빛고을극약전수관. 강현복 초청 관소리 춘향가.
▲소프라노 주경휘 귀국독창회=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

전시

▲관화가 박구환씨 근작전=오는 11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목판화 소묘기법으로 서정적인 화풍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 박구환씨의 대작 15점이 전시된다.

역사속의 오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 열림(1896)
▲미국, 독일에 선전포고 제1차 대전에 참전(1917)
▲이란-이라크 전 시작됨(1980)
▲1988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이름들 호돌이로 결정(1984)



News Quiz (뉴스 퀴즈)

6. 올해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호남 민심은 다가오는 2007 대선과 이를 둘러싼 정계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① 5월 31일 ② 7월 31일
③ 9월 31일 ④ 11월 31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윤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광주무등파크호텔 1일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14 "슈퍼맨을 원한다면 원더우먼이 되어라"

남성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남성회원 뿐만 아니라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남성회원도 내조를 잘 할 것 같은 '현모양처형' 여성보다 현재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공인회계사 김상준씨(가명·34)의 경우 "결혼 후 꼭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사회생활을 한 여성일수록 대화도 잘 통하고 바쁜 남편의 사회생활도 잘 이해할 수 있리라 라고 생각된다."

그녀가 원하는 상대방의 직업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능력있는 남성이었다.
"회원님, 그 분들을 만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분들도 많으니 조금만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돼요. 부모님 소원이세요!!.. 부탁드릴게요"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감을 소개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원하시는 배우자상이 있으셔서 사실상 매칭하기가 힘들 것 입니다."
부러워한 직업도, 그렇다고 뛰어난 학벌도 아니었던 그녀에게 해 줄

'킹카'를 원하면 '퀸카'가 되라

수 있는 말이라고는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 물론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기본적인 조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선 대학과 졸업 후, 이렇다할 직장이 없었으며, 몇 개월 간의 회사생활과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 전부였다.
얼마 전 걸려온 그녀의 전화, "감사합니다. 저 취직 했어요"
그녀는 작년 겨울,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 또한 올 봄

에 원하던 디자인 공부를 하기위해 대학원에 입학도 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 취업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이젠 삶에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저 불에 결혼도 하게 됐어요. 꼭 와주세요"
"넌 축하드려요, 좋은 분 만나셨더니 다행이네요... 신랑되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지금 저희 회사에 과장으로 계신 분이예요"
"정말 잘 되셨네요, 대기업 엘리트 직장인 아니면 결혼 안하신다고 하시더니?"

"글쎄요, 이런 좋은 분을 또 어디서 만날까 싶어서 제가 먼저 고백 했는걸요"
최근 볼 수 있는 드라마·영화·광고속 여주인공은 저마다 능력있고 아름다운 커리어우먼 일색이다. 최근 직업조건 때문에 맞선상대한테 퇴짜를 맞은 대학원생 이모(여·26)씨는 "요즘 남자들은 모든 여성이 '드라마나 광고 속 커리어우먼'이어야 하는 듯 작각을 한다"고 말한다.
결국, 남자의 경제력과 능력을 쫓는다면 여성 또한 그 조건에 맞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조건과 능력을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특수클럽(주) 대표컨설턴트>

바둑 기사판: 2005 바둑뉴스 스타스 삼국지. 백이 103을 둔 것은 이상훈 8단이 국면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조한승 8단은 104로 지켰다. 그런 데도 흑은 105로 움직여 응수를 물어왔다. 백에게 111의 곳을 이어달라는 얘기가. 그러면 다시 106에 두어 117에 잇기를 강요한다. 이수순은 흑의 달콤한 주문이지만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여 프로는 없다. 조 8단은 106으로 씩위 반발하고 나섰다. 흑이 117로 끊어 난해한 싸움이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바둑 소식: 이세돌, 맥심키퍼배 2연패. 이세돌 9단이 4월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회 맥심키퍼배 입신최강전 결승 최종국에서 최철한 9단에게 69수 만에 흑 시간승을 거두고 맥심키퍼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세돌 9단은 최철한 9단이 40초 초읽기 1회만 주어지는 대국 규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손쉽게 우승을 챙겼다. 시간패는 일반 예선 대국을 비롯 본선 대국에서도 1년에 한 번도 나오기 힘든 해프닝이다. 이세돌 9단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패권을 차지, 유창혁 9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맥심키퍼배 2연패 달성의 주인공이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 소식: 이세돌, 맥심키퍼배 2연패. 이세돌 9단이 4월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회 맥심키퍼배 입신최강전 결승 최종국에서 최철한 9단에게 69수 만에 흑 시간승을 거두고 맥심키퍼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세돌 9단은 최철한 9단이 40초 초읽기 1회만 주어지는 대국 규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손쉽게 우승을 챙겼다. 시간패는 일반 예선 대국을 비롯 본선 대국에서도 1년에 한 번도 나오기 힘든 해프닝이다. 이세돌 9단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패권을 차지, 유창혁 9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맥심키퍼배 2연패 달성의 주인공이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음 3월 9일 乙丑)
子 36년생 같은 조용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48년생 열드려 눈물 날일 이 흠 있을까 걱정이다. 60년생 주변의 달콤한 표정에 속지 마라. 72년생 대고는 없지만 傳藏도 없다. 84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再充甯 하고 진행하라.
丑 37년생 주길한 하루이나 苦難은 있다. 49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61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봐라. 73년생 業務上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85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류.
寅 38년생 가내 우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 해보라. 62년생 친지간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라. 74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면 발전은 계속된다.
卯 39년생 보장은 절대없음이고 부분간에 대화를 하야 할 때. 51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63년생 자녀로 불만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75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辰 40년생 부분간에 소사 냉전을 조성하는 형상이니 서로가 이해하라. 52년생 형제나 근친간의 말썽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야 할 때. 64년생 유혹 속에 虛空歲月 한탄 하라. 76년생 부부일건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巳 41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53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65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살리우주로 정리하라. 77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午 42년생 옛 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54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라라. 66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78년생 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 부분간의 등산으로 意氣投合을 시도해 보라.
未 43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생방과실. 55년생 부분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67년생 용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생긴다. 79년생 모든 일이 결사투연결되며 이 사할 수도 있다.
申 44년생 공문서 잡고 눈물날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라. 56년생 沈痾痼疾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아래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68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80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酉 45년생 될 듯 될 듯한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다. 81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손윗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라.
戌 46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8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70년생 큰 투지는 없는 것이 좋으며 신규사업은 피하라. 82년생 희망의 새이름을 만나는 짝이니 계획을 세워라.
亥 47년생 枯木回春이니 더욱 더 잘 가꿔라. 59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미지수다. 71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봐라. 83년생 지혜 있는 신배와 상의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굿모닝 잉글리쉬 <622> 오하이오 니혼고 <622> 니하오 풍구워 <369> 한자 이야기 <239>
Be sure to ~ 반드시 ~ 하세요
A:I must be going now. B:So soon? I have many things to tell you. A:I'm sorry, but my babysitter cannot stay after nine. B:I understand. Be sure to call me tomorrow, OK?
A:지금 지금 가야겠어. B:이렇게 일찍? 난 너한테 할 말이 많은데
A:미안해, 하지만 babysitter가 9시 이후까지는 기다릴 뭇하거든. B:알았어. 내일 꼭 전화해줘. 알았지?
I must be going now = I should be going now. So soon? = Already? I have many things to tell you = There's a lot I want to talk about with you. Be sure to ~ = Make sure you to ~. [Ex.] Be sure to take your coat with you
おそばでも食べに行かない? 메밀국수라도 먹으러 안갈래?
A:おそばでも食(た)べに行(い)かない? 'ざるそば'の美味(おいしい)店(みせ)を見(み)つけたんだ。 B:そういえば、日本には、'ざるそば'でも'もりそば'ってあるじゃない。あれって、どうちがうの? A:海苔(のり)がかかっているのが'ざるそば'で、ないのも'もりそば'だよ。 B:へえ、そうだったのか。
A:메밀국수라도 먹으러 안 갈래? '자루소바'가 맛있는 가게를 발견했어. B:그리고 보니까 일본에는 '자루소바'하고 '모리소바'라는게 있었어?그게 어떻게 달라? A:김이 얹혀져 있는 것이 '자루소바'고, 없는 것이 '모리소바'야. B:저런! 그랬었어?
ざるそば : 소쿠리, 대발에 담은 메밀국수(보통 가늘게 한 구운 김이 얹혀 있다)
もりそば : 나무 찻통에 담은 메밀국수
吃糖药 약을 잘못 먹다
A:救命薬を、有差支反常嗎? B:はい、お薬を間違えて飲んでしまいました。 A:どうして? B:お薬を間違えて飲んでしまいました。
未亡人(미망인)
아닐 미, 죽을 망, 사람인
미망인(未亡人)은 글자대로 하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未)는 나무(木) 윗부분의 끝자리를 나타내는 횡선(-)을 곁서서 '갈'을 의미한다. 망(亡)은 L(돌려싸다)+인(人)으로, 돌려싸여 보이지 않다. 나아가 '사라지다'를 의미한다. 인(人)은 사람이 서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고대에는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나 신하 그리고 노비들을 산체로 함께 파묻는 순장(殉葬)제도가 있었다. 순(殉)은 따라 죽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전에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미망인이라는 말은 남편이 죽으면 함께 파묻혀 따라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있어 죄송스럽다는 뜻이 담겨있는 말이다. 아직도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은 부인을 비밀스럽게 희생시켜 '여신(女神)'으로 미화시키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미망인을 '전생 미망인'·'나이 어린 미망인'이라고 하여, '과부(寡婦)'라는 친호 대신 상용하고 있지만 그다지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닌듯하다.